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研究 現況

김 상 현*

目次

- I. 머리말
- II. 『三國遺事』의 撰者와 編纂 時期
 - 1. 『三國遺事』의 撰者
 - 2. 編纂 時期
- III. 後人 添附說의 검토
 - 1. 後人이 追加한 條目이 있는가?
 - 2. 後註의 有無
 - 3. 他人의 讚이 있는가?
- IV. 初刊의 時期
- V. 맺는말

* 동국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삼국유사』가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한국고대사 연구의 기본 사서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였으니, 그 연구의 역사도 100여 년이 되었다. 역사·민속·종교·문학·언어·고고·미술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룩해 온 『삼국유사』 연구 성과는 많아서 몇 차례 연구 논저 목록으로 정리될 정도다. 필자는 「삼국유사론」을 통해 그 연구 백년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¹⁾ 일연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의 학술회의에서는 『삼국유사』의 편찬과 간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이 문제는 『삼국유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과제이기에 연구사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 『三國遺事』의 撰者와 編纂 時期

1. 『三國遺事』의 撰者

『삼국유사』 권5에 만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는 저자명이 보인다. 그리고 일연의 제자 無極이 附記한 두 곳에 ‘無極記’라고 밝혔다. 조선초기의 『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책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³⁾ 『東史綱目』에

1) 출고, 「삼국유사론」, 『강좌한국고대사』 제1권(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2) 이 논문은 일연학연구원 2006년도 국제학술발표대회(7월 2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삼국유사의 연구 현황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임.

는 麗僧無極一然等撰, 高麗中葉僧無極一然撰, 高麗中葉僧無極所撰 등으로 기록하여 저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들어내고 있다. 권5의 '一然撰'과 부기 중의 '無極記'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연과 제자 무극을 동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예는 1908년에 편찬된 『增補文獻備考』를⁴⁾ 거쳐 최근까지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⁵⁾ 그러나 “本初에는 권마다 찬자의 名을 表出하였을 것이지만 初梓 혹은 重刊의 際에 脫畧되고 5권의 그것만이 幸存했을 것”이라는 최남선의 해설을 주목하지 않더라도, 『삼국유사』가 일연의 저술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식으로 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를 일연의 단독 저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권상로는 『삼국유사』를 저자를 중심으로 한 몇 사람의 역사적 취미가 담긴 한 독특한 발자취로 이해하기도 했다.⁶⁾ 蔡尙植은 『삼국유사』는 일연 단독 작업이라기보다 그의 門徒들이 대거 동원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歷代年表』가 仁興社를 중심으로 한 일연의 문도들이 대거 동원되어 만들어졌고, 『삼국유사』는 이 연표를 토대로 하여 저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 필자는 줄고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⁸⁾에서 채상식의

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京畿條.

4) 『增補文獻備考』(卷244, 藝文考3)에는 「三國遺事 五卷 高麗僧無極一然撰」이라고 했다.

5)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 중의 一然이라는 항목 및 李民樹譯, 『三國遺事』(三星文化文庫, 1979) 책 머리의 著者 소개, 그리고 民族文化推進會의 『국역동사강목』1(1977), p.67의 譯註, 교양국사총서편찬위원회가 엮은 『한국의 명저』(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p.29 등에서 無極을 一然의 號라고 했다.

6)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p.9.

7) 蔡尙植, 「至元 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三英社, 1986), pp.685~702.

이 견해를 잠시 수용한 바 있지만,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⁹⁾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인흥사에서 『역대연표』 간행과 일연의 『삼국유사』 편찬은 무관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고 자료의 수집과 편찬의 전 과정에서 완전히 일연 단독으로 이룩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일연은 주위의 협력을 굳이 사양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거절할 정도로 응졸하지도 않았다.”는 허홍식의 견해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¹⁰⁾ 前後所將舍利條의 경우, 고종 19년 강화도로의 遷都시에 佛牙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사 다음에 “이 實錄은 그 당시 內殿에서 향을 사르고 기도하던 전 기림사의 대선사 覺猷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는 그때 친히 본 일이라 하면서 나에게 기록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은 일연이 주위의 협조를 받고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이다. 박진태 등도 일연 단독에 의해 『삼국유사』가 편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이 책에 다른 사람의 글들이 문장 곳곳에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¹¹⁾ 그 구체적인 사례를 摘示하지는 않았다. 하정룡은 일연 한 사람에 의해 『삼국유사』가 편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 명의 편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王曆의 편찬자가 다르듯이 각 편목의 편찬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삼국유사』에는 無極이 덧붙인 기록이 두 군데 있다. 즉, 前後所將舍利條 끝에 첨가한 按說과 眞表傳簡條 다음에 붙인 關東楓

8) 『동양학』 1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5.

9)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0) 허홍식, 「삼국유사 찬술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2005), p.182.

11)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도서출판 박이정, 2002), p.61.

12) 河廷龍, 『삼국유사 사료비판』(민족사, 2005), p.142.

岳鉢淵藪石記가 그것이다. 제자가 스승의 저서에 손댄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無極은 자신이 첨가한 기록에는 ‘無極記’라고 明記함으로써 스승의 원문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스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제자의 도리였지만, 동시에 ‘無極記’라고 밝힌 기록 이외에는 그가 덧붙인 기록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무극이 스승의 手稿에 부기를 붙여 定稿했다고 하더라도 『삼국유사』의 찬자에 무극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 하정룡은 “무극을 중심으로 이차적인 찬술, 즉 補入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일연 및 무극 등의 찬자”¹³⁾, 혹은 “유사의 찬자로 일연과 무극 이외에도 몇 명의 찬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라고 하여¹⁴⁾ 무극을 일연과 나란히 『삼국유사』 저자로 표현하고 있다. 하정룡도 무극이라고 명기한 “두 조목 이외에 무극이 손을 댄 곳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무극을 『삼국유사』 찬자 중의 한 사람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하정룡은 “비문을 비롯한 그 어느 사료에도 유사의 諸篇目 전부가 일연의 저작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삼국유사』를 일연 단독 작품으로 보아온 기존의 견해는 민족사학의 입장에서 일연을 과대평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¹⁵⁾ 따라서 그는 유사 전체를 일연의 단독 작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諸篇目에 따라 각기 다른 편찬자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또 “일연 생존 시에 권5의 집필은 끝났으나, 전체 편목은 미완성 미간행으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⁶⁾거나, “원본이

13) 하정룡, 앞의 책, p.16.

14) 하정룡, 앞의 책, p.297.

15) 하정룡, 앞의 책, p.143.

16) 하정룡, 앞의 책, p.293.

권3부터 권5까지 존재했으며 이후에 기이편이 추가되었던 것”¹⁷⁾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일연이 직접 편찬하지 않은 왕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 책의 저자를 여러 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연은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가락국기를 『삼국유사』에 수록했듯이, 왕력도 그가 『삼국유사』에 수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왕력의 편찬 시기를 일연 사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삼국유사』 권5에 기록된 撰者에 대한 職銜의 표기, 즉 ‘國尊 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主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에 諡號 ‘普覺’이 빠져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승 死後에 제자가 시호를 뺀 직함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⁸⁾ 따라서 『삼국유사』 전체의 撰者는 일연이고, 국존에 책봉되고 79세로 인각사 주지가 되었던 1285년 이후로부터 84세로 입적한 1289년까지의 일연 생존 시에 제5권까지 脫稿되어 있었던 것이다.

2. 編纂 時期

『삼국유사』의 찬술 시기에 대한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崔南善에 의하면, 일연이 定林寺로 옮긴 1249년(고종 36) 이후에 『삼국유사』 찬술을 시작하여 國尊에 봉해진 1283년(충렬왕 9) 이전에 끝난 것으로 추측했다.¹⁹⁾ 그런데 『삼국유사』의 전편은 1278년 이후, 일연의 나이 73~76세 사이에 雲門寺에서 본격적

17) 하정룡, 앞의 책, p.203.

18) 천혜봉, 「삼국유사 편각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2005), p.217.

19) 崔南善, 앞의 책, p.50.

으로 찬술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채상식의 주장이 그것이다.²⁰⁾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만들어진 『歷代年表』가 1278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閔泳珪의 경우, 『삼국유사』의 저술 시기를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연 80평생의 정진이 이 책에 集注되어 있다고 보았다.²¹⁾ 민영규가 자료 수집으로부터 원고 집필에 이르는 전 시기에 주목한 것이라면, 최남선과 채상식은 주로 원고 집필 시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일연이 거주했던 지역과 그의 사료 수집을 관련지어 보는 견해도 있다. 鄭求福의 경우다. 그는 일연이 『삼국유사』의 자료를 모은 것은 늦어도 陳田寺를 떠나기 전인 23세 무렵부터 50여 년에 걸쳐 사료 수집을 하였고, 모은 자료가 『삼국유사』에 남겨 있다고 했다.²²⁾ 이것은 앞에서 말한 민영규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사료 수집에 관심을 갖고 보낸 많은 세월과 원고 집필 시기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섭불연좌 석조의 “釋尊으로부터 지금의 至元 18년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이미 2230년이 지났다.”는 기록은 주목된다. 지원 18년(충렬왕 7년, 1281)은 일연이 76세로 왕의 부름을 받아 東都의 行在所로 갔던 때다. “지금 至元 18년”이라는 년대는 『삼국유사』 찬술 당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충렬왕 9년(1284) 3월에 일연을 國尊으로 삼고 ‘圓徑冲照’라고 했으며, 10년에 인각사를 下安의 사원으로 해서 일연이 주석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일연의 직함에 ‘國尊圓徑冲照’, ‘麟角寺

20) 蔡尙植, 「至元 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1986, p.702.

21) 閔泳珪, 「삼국유사」, 『한국의 고전백선』(『신동아』 1969년 1월호 별책부록), p.88.

22) 鄭求福, 「삼국유사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11.

主持' 등이 포함될 수 있던 시기는 그의 나이 79세가 되던 1285년 이후로부터 84세로 입적한 1289년까지이다. 따라서 『삼국유사』 찬술의 하한 년대는 1289년까지 잡을 수 있다. 『삼국유사』가 일연의 사후인 1310년 이후에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이근직의 주장²³⁾은 주의를 요한다. 그는 왕력과 기이편의 후백제견훤조에 보이는 鐵原이라는 지명에 주목하여 이 지명이 사용되기 시작한 1310년 이후에 왕력이 작성되었고, 『삼국유사』의 원고본이 이 이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鐵原에 관해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왕력에는 鐵圓(原)에 관한 다음의 기사가 보인다.

- a. 丙辰(896)都鐵圓城(今東州也)
- b. 甲戌(914)還鐵原
- c. 戊寅(918)六月 畜死 太祖即位于鐵原京

고려 태조가 즉위하고 도읍을 개경으로 옮기면서 鐵圓을 東州로 고쳤고(919), 그 후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鐵原으로 고쳤다. 이근직은 왕력에 鐵原이, 그리고 紀異篇의 後百濟甄萱條에도 '貞明四年戊寅 鐵原京衆心忽變'이라고 하여 鐵原京라는 지명이 사용된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나 a의 鐵圓郡(今東州也)에서 지금이라고 한 것은 東州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던 시기, 즉 919년부터 1310년 사이의 어느 때에 해당할 수 있기에 왕력 찬자나 일연이 붙인 註일 수도 있다. 이근직의 경우처럼, 이를 왕력 찬자가 참고로 했던 1310년 이전의 사료 중의 原註라

23) 이근직,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 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 101(한국사연구회, 1998), pp.29~43.

고만 보아야할 근거는 없다. 이근직은 b와 c, 그리고 後百濟甄萱條의 鐵原이라는 지명 표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到彼岸寺鐵造毘盧遮那佛造像銘記 중의 鐵員郡을 鐵圓郡의 동음이자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圓과 原은 다른 글자이지만 同音異字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Ⅲ. 後人 添附說의 검토

1. 後人이 追加한 條目이 있는가?

義解篇 중의 關東楓岳鉢淵藪石記는 無極이 부기한 조목임은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편집상의 혼란으로 인해서 마치 독립된 조목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권1 중의 又四節遊宅은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앞의 辰韓條에 연결될 본문 중의 일부일 것이다. 권2 중의 '讚耆婆郎歌曰'도 독립된 항목이 아닐 것이기에 別行으로 하지 말고, 앞의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 연결되어야 마땅하다. 권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의 첫 행중의 '德經等大王 備禮受之'라는 구절은 그 앞의 항목 孝成王條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잘못되었다.²⁴⁾ 권3의 三所觀音衆生寺條, 栢栗寺條, 敏藏寺條는 내용으로 볼 때 원래 독립된 3항목이 아니라, 三所觀音 衆生寺 栢栗寺 敏藏寺라는 하나의 제목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²⁵⁾

24) 참고,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26.

25) 장충식, 『삼국유사 탐상편의 체제의 검토』, 『한국불교미술연구』(시공사, 2004).

『삼국유사』에는 무극의 부기 이외에도 후인의 添記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李基白에 의하면, 駕洛國記·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條, 五臺山文殊寺石塔記條 등은 일연 이후에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한다.²⁶⁾ 이들 항목은 어떤 주제에 대한 저자의 서술이 아니라 일정한 사료의 인용일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일반적으로 주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으로써 각 항목의 제목을 삼고 있는 것과는 크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⁷⁾ 그러나 필자는 가락국기가 일연에 의해 수록되었다고 생각한다.²⁸⁾ 五臺山文殊寺石塔記는 저자 일연이 현지에서 들었던 古老의 이야기와 직접 살펴보았던 목격기, 그리고 正豐(隆) 元年(1156)에 白雲子가 쓴 縣板記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李基白은 석탑기 전체를 白雲子의 기록으로 보지만, “正豐元年丙子十月日白雲子記” 운운의 백운자는 현판의 찬자일 것이다. 따라서 오대산문수사석탑기조를 일연 이후의 추가로 보기는 어렵다. 塔像篇에는 五臺山信仰과 관련이 있는 기록으로 臺山五萬眞身,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臺山月精寺五類聖衆 등의 세 항목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 기록들은 山中古傳에 의거하여 쓴 것 같다. 그런데 이기백의 견해에 의하면, “태자전기조는 누군가가 참고삼아 적어 놓은 것이 어느덧 본문 속에 편입된 것”이라고 한다.²⁹⁾ 하정룡은 “일연에 의해서 두 조목이 찬술된 것이라면 아무런 설명 없이 완전하게 중복되는 전기를 진신조의 뒤에 배치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기백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³⁰⁾,

26) 李基白,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 『新羅文化』 1(1984), p.21.

27) 李基白, 「三國遺事의 篇目構成」, 『佛敎와 諸科學』(東國大學校出版部, 1987), p.988.

28) 金相鉉,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 『東洋學』 15(1985), p.229.

29) 이기백, 앞의 논문, 1987, p.988.

30) 하정룡, 앞의 책, p.205

태자전기는 (일연) 이후에 첨가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³¹⁾ 대산오만진신조와 태자전기조에는 약간의 중복도 없지 않지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완전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라면, 참고삼아 적어 놓을 이유도, 또 본문으로 편입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태자전기조도 일연에 의해 수록된 것이다. 이기백에 의하면, 東京興輪寺金堂十聖條도 일연의 『유사』와는 관계 없이 누군가가 참고삼아 적어 놓은 것이 어느덧 본문 속에 편입된 것이라고 한다.³²⁾ 아무런 설명적인 문장이 없는 이 항목의 서술 방법은 『유사』의 다른 어느 조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서지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이와 같은 추측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정룡에 의하면, 紀異篇도 일연에 의해 전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무극을 비롯한 후대의 누군가가 天賜玉帶條 등을 재편집하고, 후백제견훤조 등을 補入하여 완성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³³⁾ 그는 천사옥대조는 원래 황룡사구층탑조에 있던 내용을 제삼자가 편집·간행하는 과정을 거쳐 기이편에 재편집되었다는³⁴⁾ 것이지만, 필자는 이를 비판한 바 있다.³⁵⁾ 이상과 같이 『삼국유사』 중에는 후인에 의해서 추가된 여러 항목이 있다는 주장을 검토한 결과 無極이 附記한 關東楓岳鉢淵藪石記條 이외에는 후인의 추가로 인정할 만한 항목은 없었다.

31) 하정룡, 앞의 책, p.245.

32) 李基白, 앞의 논문, p.988.

33) 하정룡, 앞의 책, p.262.

34) 하정룡, 앞의 책, p.295.

35) 졸고, 「삼국유사 찬 연구」, 『동국사학』 41(동국사학회, 2005).

2. 後註의 有無

今西龍은 이미 1929년에 발표한 글에서 『삼국유사』에는 후주가 있다고 주장했다. 古朝鮮條 중의 “今白嶽宮是” 운운의 주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³⁶⁾ 高橋亨은 「三國遺事の註 및 檀君傳説의 發展」(1955년)이란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후주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특히 古本, 一本, 或本 등을 正徳本 이전의 다른 刊行本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후주가 있다고 주장했다.³⁷⁾ 필자는 한국사연구회 제89회 월례발표회(1981. 5. 13.)에서 「삼국유사 주의 검토」를 발표하면서 이들 일인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비판했고, 그 대부분의 내용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1987년)에 포함시킨 바 있는데, 후주로 단정할 만한 주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에 하정룡은 후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그에 의하면, 후주란 무극 이외의 제3자가 加註한 것으로³⁸⁾, 전후소장사리조를 인용한 慈藏定律條의 分註, 古朝鮮條의 白嶽宮이라는 분주,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본문의 此傳 등 7개의 후주가 확인된다고 한다. 그리고 후주는 필사본 유사를 활용했던 승려들이 그 책의 행간에 기록했던 것이라고 한다.³⁹⁾ 그러나 후주의 문제는 서지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주의 내용까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기록들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자장정률조에서 자장이 통도사를 세우고 戒壇을 쌓아서 사방에서 오는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서술하면서, “계단의 일은 이미

36) 今西龍, 1929 「檀君考」, 『朝鮮古史の研究』(1937, 東京, 國書刊行會), p.8.

37) 高橋亨,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7(1955), pp.67~70.

38) 하정룡, 앞의 책, p.201.

39) 하정룡, 앞의 책, p.207.

위에 나왔다”는 주를 덧붙였다. 통도사계단에 관한 기록은 황룡사구층탑조와 전후사리소장조에 보이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자장법사는 오대산에서 받은 사리 100과를 그 탑의 기둥 속과 통도사계단과 태화사탑에 나누어 봉안했다.(황룡사구층탑조)

선덕여왕 때인 정관 17년 계묘(643)에 자장법사가 당나라에 부처의 머리뼈와 부처의 어금니와 부처의 사리 1백 알과 부처가 입던 붉은 겁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을 가지고 왔다. 그 사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황룡사탑에 두고 한 부분은 태화사탑에 두고 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두었다.(전후소장사리조)

자장정률조 중의 “계단의 일은 이미 위에 나왔다”는 주는 앞에 인용한 황룡사구층탑조 및 전후사리소장조 중의 통도사계단 관련 기록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주는 무극기가 있는 전후소장사리조를 보고 인용한 것이라는 하정룡의 지적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주가 전후소장사리조 보다 늦게 시술된 것이고, 무극 이후의 후주로 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하정룡은 무극기를 포함하고 있는 전후사리소장조 전체를 무극의 부기로 보기 때문에⁴⁰⁾ 전후소장사리조 중의 통도사계단 기록에 대해서 언급한 자장정률조 중의 “戒壇事已出上”을 무극 이후 제3자에 의해 補入된 註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후소장사리조 끝의 ‘按此錄’ 이하의 글만이 무극이 덧붙인 것일 뿐, 전후소장사리조 전체를 무극이 부기한 것은 아니다.⁴¹⁾ 그리고 “계단의 일은 이미 위에 나왔다”는 주는 이미 앞에

40) 하정룡, 앞의 책, p.198.

41) 줄고, 「삼국유사 찬 연구」, pp.9~11 참조.

나온 기록이기에 자장정물조에서는 중복을 피하여 간략하게 서술하니 앞의 기록을 참고해도 좋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전후 기록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 황룡사구층탑조에서 자장법사가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授法을 感得했다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本傳에 나타나 있다”는 주를 붙였고, 자장정물조에는 자장이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계를 이상한 승려가 와서 해석해 주었다는 내용 뒤에 “이미 황룡사탑에 나왔다”는 주를 달았다. 이로써 일연이 전후 기록간의 관계에도 유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장정물조 중의 “계단의 일은 이미 위에 나왔다”는 매우 간단한 주를 무극 이후에 누군가가 덧붙일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삼국유사』 저자의 입장에서는 전후 기록을 연결해 주는 의미가 있지만, 제3자나 독자의 입장에서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독자의 훗날에 참고하기 위한 메모였다면, “계단의 일은 이미 위에 나왔다”고 애매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계단의 일은 전후사리소장조에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고조선조 중에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했다는 기록에 관한 주, 즉 “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自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嶽宮是”은 일찍부터 후주로 지목받아 오고 있다. 今西龍은 “지금의 白嶽宮이 이것이다”라고 한 이 주를 後註로 보았고,⁴²⁾ 高橋亨 또한 이를 부연·설명했다.⁴³⁾ 이 註에서 「지금의 백악궁이 이것이다」고 한 백악궁이 始營된 것이 공민왕 9년(1360)이었기⁴⁴⁾

42) 今西龍, 1929 「檀君考」, 『朝鮮古史の研究』(1937, 東京, 國書刊行會), p.8.

43) 高橋亨, 앞의 논문, pp.73~74.

44) 『高麗史』 卷39, 恭愍王 9年 秋 7月 乙卯條에는 “白岳에 행차하여 遷都할 땅을 살펴보았는데, 백악은 臨津縣의 북쪽 5리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同月 辛未條에는 ‘비로소 白岳에 宮闕을 경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左蘇·右蘇·北蘇 등 高麗 三蘇 중 左蘇에 해당하는 이 곳 백악은 이미 명종 때부터 주목되었다. 즉 명종 4년(1174)에는 조서를 내려 左蘇인 백악산에 延基宮闕造成官을 두었고,⁴⁵⁾ 또한 고종 4년(1217) 12월에는 백악에 新闕을 始營했고,⁴⁶⁾ 동왕 15년(1228)에⁴⁷⁾ 御衣帶를 만들어 백악의 假闕에 移安하게 했다. 이처럼 일연 이전의 明宗·高宗 때에 이미 延基宮闕로서의 白岳宮이 있었다. 필자는 이 사실에 유의하면서, 고조선조의 주 '今白岳宮'은 공민왕 9년(1360) 이후의 후주가 아니라 일연의 自註라고 주장한 바 있다.⁴⁸⁾ 그러나 하정룡은 최근 이들 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今白岳宮' 운운의 주는 백악궁이 완성된 1360년 11월 이후에 추가된 후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명종 4년의 기사는 궁궐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궁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고종 4년의 기사는 闕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완성 여부를 알 수 없고, 고종 15년의 기사는 假闕이라고 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기사는 천도를 위해서 궁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延基를 위해서 가궐을 만들고 거기에 어의만을 봉안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백악에는 공민왕대인 1360년, 즉 일연 입적 후에 가서야 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완성된 것이다. 결국 일

45) 『高麗史節要』 卷12, 明宗 4年 夏 5月條에는 「制 左蘇白岳山·右蘇白馬山·北蘇箕達山 置延基宮闕造成官」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만으로는 과연 白岳에 궁궐이 조성되었던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李丙燾의 상세한 연구가 있고, 그는 이 때 궁궐이 세워졌던 것으로 논증하고 있다.(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乙酉文化社, 1948), p.247.)

46) 『高麗史』 卷22, 高宗 4年 12月 庚戌條.

47) 『高麗史』 卷22, 高宗 15年 12月 甲子條.

48) 참고, 「三國遺事の 書誌學的 考察」, 1987, p.23.

연의 당시에는 백악에는 궁이 없었으므로 유사 고조선조의 백악 궁 운운의 분주는 후주가 된다.”라고 주장한다.⁴⁹⁾ 특히 하정룡은 闕은 왕궁의 정문 양쪽에 설치한 누대라는 사전적 의미에 유의하여 꺾을 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궁궐다운 궁궐이 아닌 假闕 정도를 백악궁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新闕이나 假闕 등의 용어뿐만 아니라 延基宮闕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기에 꺾을 궁이 궁궐과 구별하여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入闕이나 退闕의 闕이 大闕을, 그리고 大闕이 곧 宮闕을 의미하듯이, 신궐이란 새로운 궁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고종 때의 白岳假闕이나 공민왕 때의 白岳新宮이나 그것은 모두 연기궁궐로 지어진 것이기에 假闕이기는 마찬가지다.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조에는 인용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 調信의 설화를 서술한 뒤에 “議曰 讀此傳 掩卷而追繹之 …… 乃作詞誡之曰 …… 時時合眼到清涼” 운운의 내용이 있다. “이 전을 읽고” 운운의 이 부분은 일연 이후의 누군가에 의하여 덧붙여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논의 한 바 있다.⁵⁰⁾ 하정룡은 이 부분을 독자의 감상이 담긴 후주라고 주장한다.⁵¹⁾ 『삼국유사』에 보이는 6개의 ‘議’ 중에서 이것만이 내용과 형식에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調信傳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이 傳을 읽고서 책을 덮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 하필 調信師의 꿈만이 그렇겠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속세의 즐거움만 알고서 기뻐하며 애쓰고 있으나, 다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한 다음 다시 詞를 지어 경계하기도 했다. ‘議曰’로 표시된

49) 하정룡, 앞의 책, p.289.

50) 졸고,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1987, p.50.

51) 하정룡, 앞의 책, p.210.

이 구절이 ‘讀此傳’으로 서술되고 있음은 마치 일연 이후의 다른 사람이 쓴 글처럼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 서술한 武王條의 끝의 註에서도 스스로 서술하고 있는 무왕조를 ‘이 전〔此傳〕’이라고 지칭했고, 駕洛國記條 말미에도, 자신이 인용한 가락국기를 지칭하여 ‘이 기록〔此記〕’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런 예에 유의할 때, 洛山二大聖條의 끝에 있는 議曰 이하의 기록이나 詞도 일연이 쓴 것이라고 하겠다.

臺山五萬眞身조에는 淨神大王의 태자 寶川과 孝明 두 형제가 각기 1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省鳥坪에서 유람하던 어느 날 오대산으로 입산했다는 기사 뒤에 주를 달아 “古記에서는 太和 원년 정미(647) 8월 초에 王이 산중에 숨었다고 했으나 아마 이 글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 이로써 이 글의 잘못을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는 眞如院에는 문수보살이 날마다 이른 아침에 36가지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났다는 기사 다음에 “36形은 臺山五萬眞身傳에 보인다.”는 주가 있다. 이처럼 寶川과 孝明 두 형제가 太和 원년에 오대산으로 입산했다는 古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곧 이어지는 傳記에는 두 태자가 태화 원년 8월 5일에 오대산으로 숨어들어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정룡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眞身條와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傳記가 바로 뒷 조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신조에서 전기가 아닌 고기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진신조의 찬자는 유사에 전기가 실릴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반대로 전기의 찬자는 앞에 진신조가 실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의 찬자는 분주를 통해서 진신조를 대산오만진신전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²⁾

이 주장에는 太子傳記가 일연 이후의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논한 바 있듯이 수증하기는 어렵다. 『삼국유사』 중의 태자전기조는 일연이 직접 열람했던 『五臺山月精寺事蹟』 중의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를 참고하여 서술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물론 閱漬가 1037년에 한문으로 윤색하기 전의 古記錄이다. 이 때문에 일연은 古記라고 했던 것이고, 그 내용도 거의 같은 것이다. 그리고 태자전기조 중의 “36형은 臺山五萬眞身傳에 보인다.”는 내용의 주를 후주로 본 것도 태자전기조를 일연 이후에 추가된 기록이라는 단정에 토대하고 있기에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하정룡에 의하면, 포교용으로 유사를 이용했던 여러 명의 승려가 자신의 감상이나 이전에 보았던 다른 서적들과 비교하면서 단순하게 필사본에 부기를 달았을 것이고 이것이 후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⁵²⁾ 이는 “여러 學僧들은 그들의 생각을 책에 써 넣게 되었기에 別本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高橋亨의 견해와 흡사하다. 그러나 일연 사후에 다른 승려들에 의하여 계속 추가되었다는 견해는 보다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⁵⁴⁾ 필자는 무극 이후에 어떤 승려도 추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삼국유사』의 註 중에는 ‘古本’을 비롯한 一本, 別本, 或本 등의 인용이 상당히 많다. 이 주들은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삼국유사』의 異本 및 後註의 유무와 직결되기에 주의해서 검토할 필

52) 하정룡, 앞의 책, p.205.

53) 하정룡, 앞의 책, p.207.

54) 허홍식, 앞의 논문, p.197.

요가 있다. 高橋亨은 古本, 一本, 或本 등을 正德本 이전에 있었던 『三國遺事』의 다른 刊行本으로 보았다.⁵⁵⁾ 그는 無極에 의해 初板이 刊行되었다고 파악하고, 無極의 初刊本을 古本이라고 하면서, 또한 一本, 或本 등은 古本 이후에 나타난 異本이라고 주장했다. 古本을 字義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삼국유사』의 옛 간행본이라는 뜻에 가깝다. 그러나 古本을 『삼국유사』의 옛 판본으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編次를 달리하는 등의 전면적인 改刻에 관한 문제, 一本, 或本 등의 여러 寫本이나 판본이 고려 후기에 유통되었을까 하는 의문, 後註의 有無 등이 그것이다. 古本, 一本, 或本 등은 『삼국유사』의 간행본으로 해석하기보다, 일연이 참고로 했던 다른 類의 책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圓光西學條에 인용된 『古本殊異傳』의 예와 같이, 일연이 보았던 典籍 중의 古本, 一本, 惑本 등이었을 것이다.

3. 他人의 讚이 있는가?

『삼국유사』의 저자가 일연이듯이 이 책의 한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는 讚도 일연의 작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 소재 찬 중에는 일연의 작이 아닌 타인의 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필자는 이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⁵⁶⁾ 그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삼국유사』의 찬 중에 일연의 작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피력한 이는 金周漢이다. 그에 의하면,

55) 高橋亨, 앞의 논문, pp.67~70.

56) 졸고, 「삼국유사의 찬 연구」, 『동국사학』 41(2005), 동국사학회.

‘讚曰’로 된 것이 모두 47수로 自作이고 ‘乃有讚曰’ 및 ‘有人眞讚云’ 등은 타인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삼국유사』의 기록 관례로 볼 때 有字가 붙은 것은 대개 자작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⁵⁷⁾ 그러나 김주한이 예로 든 ‘有人眞讚云’의 경우, ‘大宋元祐甲戌有人眞讚云’이라고 하여, 고려 선종 11년(1094년)에 어떤 사람이 지은 신라 말 海龍王寺의 開山祖인 普耀禪師의 眞影에 대한 讚이다.⁵⁸⁾ 따라서 이 ‘有人眞讚’은 일연이 인용한 것일 뿐, 『삼국유사』 서술 체제상에 보이는 일연의 찬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乃有讚曰’은 迦葉佛 宴坐石條에 있는 찬이다. 일연은 황룡사를 두 차례 방문했는데, 불타기 이전과 이후였다. ‘乃有讚’은 일연이 황룡사의 가섭불연좌석을 처음 보고 써 두었던 찬일 가능성이 많다. 찬 중에 연좌석이 “우뚝 서 있다”고 한 표현은 연좌석이 잣더미에 묻히기 이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유의하면, 가섭불연좌석조 중의 ‘乃有讚曰’은 일연이 일찍이 써 두었던 찬이기에 ‘有讚’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찬의 작자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은 하정룡의 경우다.⁵⁹⁾ 그에 의하면, ‘乃有’와 ‘石海云’이 붙은 찬은 일연의 작품이 아니고, 前後所將舍利條 및 元曉不羈條의 讚도 일연의 작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元曉不羈條의 찬 7연4구 뒤에는 ‘廻顧至’라는 3자가 덧붙여 있지만, 이를 衍文으로 보아온 통설

57) 金周漢, 「三國遺事所載 讚에 대하여」, 『三國遺事研究』 上(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p.245.

58) 『三國遺事』 권3, 前後所將舍利條.

59) 河廷龍은 「三國遺事の 讚에 對한 一考察」(『古代文化』 53卷 3號, 2001) 및 「三國遺事 所載 讚에 대하여」(『南道文化研究』 7,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1)를 발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삼국유사 사료비판』(민족사, 2005)에 재수록 했다.

을 깨고 하정룡은 찬의 작자를 명기한 것으로 보았다. 즉 ‘廻顧至’의 중의 ‘至’를 ‘云’의 誤字, 혹은 異體字로 보고, 원효불기조의 찬이 廻顧라는 승려의 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⁶⁰⁾ 그러나 ‘廻顧至’ 운운의 廻顧를 人名으로 보기도, 至字를 云字의 오자로 보기도 어렵다. ‘聖師元曉’ 운운으로 시작되는 원효불기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연이 서술한 것이고, 당연히 讚도 일연의 작이다.

賢瑜伽海華嚴條는 유가종의 太賢과 화엄종의 法海가 각각景德왕 12년(753년)과 그 이듬해(754년)에 행한 法力을 비교하면서 나란히 서술했다. 그런데 태현의 기사 끝에 그의 행적을 기린 讚을, 그리고 법해의 기사 끝에 그의 행적을 찬송한 또 하나의 찬을 붙였다. 그런데 태현에 관한 찬에는 협주가 없는데, 법해를 기린 찬 말미에는 ‘石海云’이라는 협주가 있다. ‘石海云’은 ‘右海云’의 잘못으로 ‘오른쪽은 (法)海를 이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石海云’을 ‘石海가 말했다’로 번역할 경우, 법해에 대한 찬은 석해가 지은 것을 인용한 것이 된다. 하정룡은 이 찬은 일연의 작품이 아니라 석해의 것이라고 주장한다.⁶¹⁾ 그러나 石은 右의 오자일 것이다.

前後所將舍利條의 경우, 찬이 끝난 그 말미에 無極이 덧붙인 글이 있다. 곧 ‘按此錄’ 운운으로부터 ‘無極記’까지가 그것이다. 이 부분이 무극이 덧붙인 按說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룡에 의하면, “사리조에는 찬을 사이에 두고 전후 모두에 予字가 사용되었기에 사리조 전체가 무극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⁶²⁾ 그러나 전후소장사리조 전체를 무극이 기록하지 않았음은 ‘按此錄 …… 無極記’ 운운의 서술 형식과 앞뒤 기록의

60) 하정룡, 앞의 책, p.188.

61) 하정룡, 앞의 책, p.295.

62) 하정룡, 앞의 책, p.295.

相異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극이 덧붙인 ‘按此錄’ 이하의 기록은 앞의 전후소장사리조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의 전후소장사리조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무극의 按說에 유의하면, 無極記를 포함하는 전후사리소장조 전체를 무극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후소장사리조의 찬은 일연이 지은 것이다. 이 찬의 작자를 무극으로 볼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이상과 같이 일연의 작이 아닐 것으로 의심받아온 몇 개의 찬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 보았지만, 48수의 찬 중에 일연의 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IV. 初刊의 時期

『삼국유사』의 初板 간행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연 간행설과 무극 간행설, 그리고 조선초 간행설 등이 있다. 일연비문에는 저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삼국유사』는 보이지 않는다. 최남선에 의하면, 일연의 전체 100여 권의 저서 중, 그 서명을 밝히지 않은 20여 권 중에 『삼국유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미간행으로 인해 비문에 명기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결국 최남선에 의하면, 일연이 간행했다는 것이다. 비를 세울 당시까지는 완성고본이 유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柳譯一의 경우다.⁶³⁾ 일연 만년에 탈고되고 미간행으로 전해지던 『삼국유사』를 그가 입적한 뒤에 제자 無極이 검토하여 처음으로 간행했을 것이라는

63) 柳譯一, 「三國遺事의 文獻變化 樣相과 變因」, 『삼국유사연구 상』(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p.269.

주장도 있다. 高橋亨의 설인데,⁶⁴⁾ 필자도 無極이 1310년대에 初刊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⁶⁵⁾ 물론 무극이 『삼국유사』를 검토하고 두 기록을 덧붙였다는 사실이 간행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천혜봉은 일연의 직함에 국존의 시호가 없는 것에 주목하고 제자 무극이 삼국유사를 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제자가 간행한 스승의 찬술에 국존의 시호를 표시하여 추앙하지 않을 리 없다는 이유다.⁶⁶⁾ 따라서 찬자의 手稿에 제자 무극이 補記하여 定稿한 후 이루어진 傳寫流通本이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한다.⁶⁷⁾ 하정룡은 무극의 비문에 『삼국유사』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무극의 생존 시에는 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⁶⁸⁾ 그러나 무극과 『삼국유사』와의 관계는 그의 비문에서 언급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공민왕 10년(1361) 1월에 작성된 慶州司首戶長行案序에는 新羅始祖赫居世王條의 내용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⁶⁹⁾ 고려후기의 전적에 『삼국유사』가 인용된 유일한 사례이다. 이때의 『삼국유사』가 간본인지 필사본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하정룡은 필사본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오히려 허흥식은 간본이었을 가능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았다.⁷⁰⁾ 사본에 비해 판본의 유통이 더 용이하지만, 『삼국유사』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고려 판본은 없고, 조선 초기 판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삼국유사』 초간본은 조선 초에 이루어졌

64) 高橋亨, pp.66~67.

65) 졸고,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앞의 책, 1987, p.36 및 p.42.

66) 천혜봉, 앞의 논문, p.217.

67) 천혜봉, 앞의 논문, p.224.

68) 하정룡, 앞의 책, p.16, p.279.

69) 盧明鎬, 『한국고대중세고문서』 上(서울대출판부, 2000), p.340.

70) 허흥식, 앞의 논문, p.190.

다는 견해가 천혜봉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최근에 조선 초기 판본을 조사한 그는 이들 판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오래된 板本으로는 조선 초기에 판각한 舊松隱藏本과 舊泥山藏本, 그리고 梵魚寺藏本을 합친 권 제2~5의 3책뿐이다. 이들 藏本의 판각된 글자체와 그 새긴 기법을 고려 이래의 전통적 版刻法에 입각하여 살펴본 바, 그것이 고려의 既刻本을 翻刻한 것이 아니고 새로 版刻用 筆書本을 마련하여 최초로 간행한 初刻版의 성격과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음이 鑑識되었다. 이들 初刻本은 版式, 紙質, 避諱法, 그리고 中宗朝 版本에 나타나고 있는 原刻記錄과 그 留版鑿藏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선 태조 3년(1394) 4월 『삼국사기』를 刊行한 前後무렵 慶州府에서 上梓된 것이다.⁷¹⁾

곧 찬자 일연이 成稿하고 제자 무극이 補記하여 定稿한 것이 다양하게 傳寫流布되다가 조선 초에 판각되었다는 것이다. 하정룡 또한 1394년을 전후한 시기에 간행된 선초본이 초간본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판본에 麗末本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一然碑에 유사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序·跋文 및 목차가 없고, 서술상의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⁷²⁾ 『삼국유사』의 초간이 조선 초에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 아직도 깊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71) 천혜봉, 「삼국유사 판각의 시기와 장소」, 2005, p.224.

72) 하정룡, 앞의 논문, p.183, p.187.

V. 맺는말

『삼국유사』 권5의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主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는 撰者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일연이 79세 이후의 어느 해에 『삼국유사』를 탈고하고 스스로 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유사』 권5 전체의 저자는 一然이 분명하고, 제자 無極은 前後所將舍利條 끝에 按說과 眞表傳簡條 다음에 關東楓岳鉢淵藪石記를 덧붙여서 定稿했다. 공민왕 10년(1361) 1월에 작성된 慶州司首戶長行案序에 『삼국유사』 新羅始祖赫居世王條의 내용이 인용되었다. 고려후기에 유통된 『삼국유사』가 간본인지 필사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직 『삼국유사』의 고려 판본은 발견된 것이 없다. 고려 후기의 유통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판본에 고려판본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선초기의 판본을 초판본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삼국유사』에는 두 곳의 無極記 이외에 후인이 첨가한 條目도 後註도, 그리고 讚도 없다.

주제어

삼국유사(三國遺事), 일연(一然), 무극(無極), 초간(初刊), 후주(後註), 부기(附記)

Abstract

Current Research Status on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Samgungnyusa

Sang-Hyun Kim

It has been 100-odd years since Samgungnyusa(三國遺事) became an object of study or was actively used as a fundamental historical material to study an ancient Korean history in the early of the 20th century. The academic fruits of Samgungnyusa made in various fields of study, like history, folklore, religion, literature, linguistics, archeology, art and so forth, are so plentiful that they can be issued as the publication lists several times. The present writer has synthetically inspected the outcomes and problems of the study in past 100-odd years through "the theory of Samgungnyusa (三國遺事論)" in 2003. Because today's conference is held in memory of the 800th anniversary of Iryeon's birth, this writer would like to look into its current research status focused on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Samgungnyusa. As these are the most essential and basic tasks on the study of Samgungnyusa, this problem needs to be arranged in the aspects of history of the study.

It's very important that a record about the author which was marked "Iryeon-chan(一然撰, written by Iryeon)" in Samgungnyusa Vol. 5. It's because it seems that Iryeon wrote this phrase himself after he completed this book in which year since he had been 79 years. It's sure that Iryeon is the author of the whole Samgungnyusa Vol. 5, therefore, his disciple Mugeuk(無極) added only Anseol(按說) at the end of Jeonhoo-sojang-sari-jo(前後所將舍利條)and

Gwandong-poongak- varyeonsoo-seokgi(關東楓岳鉢淵藪石記) into the next of Jinpyo-jeongan-jo(眞表傳簡條). And Gyeongjusa-sohojang-haengan-seo(慶州司首戶長行案序) made during the 10th year of Gongminwang(1361) quoted the content of Silla-sijo-hyeokgeosewang-jo(新羅始祖赫居世王條) from Samgungnyusa. As a block book of Samgungnyusa made in Goryeo period hasn't found until now, it's not clear Samgungnyusa distributed in the late Goryeo period is whether printed or manuscript. But it's confirmed the book was distributed in the late Goryeo period. None the less, if we concluded a block book made in the early Joseon period as the first publication because we can't found vestiges of the block book in Goryeo from that of Joseon, it will be very hasty action. There aren't any article(條目), annotation in rear(後註), panegyric(讚) that posterity added except two

Mugeuk-gi(無極記, written by Mugeuk) in Samgungnyusa.

Keyword

Samgungnyusa, Iryeon, Mugeuk, the first publication, an annotation in rear, an additional remark